'꿈이 실현되는 전주' 위해 발 빠른 국회 공략

윤동욱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 전북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현안 · 역점사업 협조 요청

전주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시정 핵심과제 추진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발 빠른 국회 공략에 나섰다.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16일 국회를 찾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강한 경제 구현과 전주의 큰 꿈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와 2025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윤 부시장과 주요 간부공무원들은 전북지역 국회의원실을 차례대로 찾아다니며 2025년 전주시 현안·역점사업들의 추진 방향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보듬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가 이날 건의한 국가예산 주요 사업은 △글로벌 영화영상 혁신기술 교육거점을 만드는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분원 설치' △영화의 제작과 촬영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AI 기반 VFX 후반제작시설 구축' △지역의 전략산업 연계·활용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 등이다.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16일 국회를 찾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강한 경제 구현과 전주의 큰 꿈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와 2025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김윤덕 의원 방문 사진)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국회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이 증액 없이 통과된 만큼 국회 단계 증액을 목표로 삼았던 주요 현안 사업인 △역사문화관광 외연을 구도심 전반으로 확장하는 '전주부성 복원·정비' △사회통합과 치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미래형 한국 정신문화 정립을 선도할 '간재선비문화수련원 조성' △주력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특화과학복합문화공간이 될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조기추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윤동욱 부시장은 "2025년도 정부의 조기 추경에 대비해 지난해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 확보와 더불어 2026년도 신규사업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순기에 맞춰 국회와 사업 관련 부처를 자주 찾아 건의하겠다"면서 "지역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협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고, 나날이 변화하여 꿈이 실현되는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16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가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

전주시청 로비서 설맞이 행사 가져

전주시는 16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가졌다.

전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주시민과 시청 직원들에게 다양한 장애인 생산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의 종류와 품질의 우수성을 알려 실제 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지역 24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이 전시됐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참기름과 들기름, 구운 소금, 한지양말, 누룽지, 물티슈, 김 선물 세트 등도 판매됐다.

최옥숙 전북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대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선물을 한다면 장애인에게 힘이 되고 명절의 의미도 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행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전주시 직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역 전면 임시주차장 개방

설 명절 앞두고 20일부터 전주역 광장 우측 전면 154면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역 전면 임시주차장이 오는 20일부터 개방된다.

전주시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은 전주역 공사 중 역 교차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주차환경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주역 전면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임시주차장은 전주역과 클래시아파트 사이 전주역 광장 우측 공간에 총 154면으로 조성됐다.

주차장은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기본 30분 1천 원, 추가 10분당 300원, 1일 주차 1만 원이다.

단, 15분 이내 출차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열차 이용객은 30%, 경차·장애인·유공자 등은 50%까지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전면 임시주차장 운영으로 전주역 공사로 인한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일부 해소하고, 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면 임시주차장이 개방되면 지난 명절 이용객들이 겪었던 불편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면 임시주차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주역 교차로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 소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전주역 뒤편(장재마을) 후면 임시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타워 조성 공사를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 혁신동,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 가져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센터는 16일 '2025년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센터(동장 서세현)는 16일, '2025년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는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상훈)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성선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더불어삶(시설장 김관무), 개인 후원 주민들이 참여하여 생활이 어려운 86세대에 잡곡세트, 백미,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면서 불편함과 어려움은 없는지 안부를 확인하였고, 다가오는 설 명절이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상훈 위원장은 "명절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도움과 위로를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세현 혁신동장은 "주변의 힘든 이웃들을 위해 늘 따뜻한 온정을 나눠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에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이웃사랑의사회, 명절맞이 이웃돕기 물품 기탁

사단법인 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는 설 명절을 앞둔 16일 효자1동 주민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130만원 상당의 명절맞이 꾸러미(백미 10kg, 라면, 김 세트, 화장지, 선물 세트 각 15개)를 전달했다.

(사)이웃사랑의사회는 전주시의사회 소속 사회봉사단체로 2002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복지단체 후원,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명절에도 효자1동을 포함하여 전주시 총 8개 동에 명절 맞이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영태 (사)이웃사랑의사회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이웃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눔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